

# 새로운 미래 앞에 서서: 건축공간연구원 개원과 역할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 auri가 건축공간연구원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auri가 기관 독립을 한다는 것의 법률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학교에 있을 때 저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제가 auri 5대 소장으로 부임을 하며 임명장을 받는데, 임명권자가 국토연구원 원장임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auri가 부설 연구소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감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하여 건축 도시 조경 분야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십여 년간 auri가 우리 곁에서 굵직 굵직한 주요 정책들을 펼쳐 온 큰 성과에 대해 더 익숙해 있었고, 기관의 법적 위상에 대해서는 잊고 지냈지만, 언제고 독립의 때는 오리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던 2020년 4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는 2020년 11월 20일에 auri는 부설연구소의 타이틀을 떼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독립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5대 소장인 저는 이제 연구원의 초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auri의 기관 독립을 기념하고자 11월 20일 당일 개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를 축하해주시려 정세균 국무총리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전 위원장님,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 대표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 원장님들, auri 개원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님들, 유관학회 및 협회 회장님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님들, auri 역대소장님들, 그리고 그동안 애 많이 쓴 유광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auri 가족들이 함께했고,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는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현 위원장님이, 대표발제는 김용미 대표님, 정석 교수님, 모종린 교수님, 이명주 교수님이, 토론은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님,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님, 김성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님과 auri 오성훈 단장님, 임유경 단장님이 해주셨습니다. auri 역사상 가장 기쁜 날 중의 하루였습니다.

**auri 개원을 맞으며 새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auri를 건축과 도시공간의 품격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2007년에 처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증폭하는 건축도시 정책수요에 대응하며 30명으로 시작한 auri가 현재 172명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오며, auri의 연구결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당당히 연구에 전념하라고 기관독립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새 연구공간으로 이사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ri 개원과 함께 좀 더 세심히 대응해야 할 우리 사회의 여러 어려움 또한 너무 많습니다.**

인구변화, 기술변화, 기후변화, 그리고 정책환경의 변화 등 심각한 도전이 auri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여건 변화가 우리의 생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시키며, 이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공간서비스 제공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의 퀄리티와 퀀티티 모두의 균형 있는 업그레이드가 국민의 삶과 행복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 매일 절감합니다. 개원을 계기로 auri는 더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며 새로이 다시 시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축, 더 나은 도시공간을 위해 더욱 정진하

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어야 합니다.

2007년 auri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도 어려운 여건이었고 정해진 답은 없었지만, 당시 고조되었던 건축과 도시공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탐구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건축기본법」을 시작으로 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지원기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지원기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법정 정책지원기구 운영과 생활SOC 지원, 그리고 보행환경연구센터, 경관센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센터,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등 다양한 제도와 기구를 마련하며 구성원 모두가 성심껏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이 남겼지만, 이는 참으로 놀랄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초심으로 돌아가 auri는 깊이 성찰하며 다함께 도약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2007년 auri 초기 멤버들이 당시에 바라봤던 앞날에 대응하고자 작성했던 그때의 미래전략 메모와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들춰봅니다. 지금 읽어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고 그 당시 꿈꾸었던 계획들이 상당 부분 성취되어 있음에 감탄하게 됩니다. 30명으로 시작한 auri가 13년 만에 172명의 가족으로 커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auri의 5개 연구단은 각기 대략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07년 auri 초기의 연구소 규모입니다. 2020년 auri 멤버들은 새 꿈으로 미래전략을 작성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정답은 없지만 탐구의 지도를 또 그립니다. 함께 다시 작성한 지금의 미래전략 메모가 10년 후 후배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결국 건축과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해 정진하고 있음에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 증진, 생활공간의 공공성 구현 그리고 문화의 공공성 확보를 추구하며 auri는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